

정보 기술 산업의 신조류: Internet Wave

정기봉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인터넷과 인터-네트워킹은 정보 기술 산업에 커다란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즉, 지난 10년간 정보 산업 기술을 지배해온 소프트웨어 패키지 공급업자들의 모습과 정보 기술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변화시켰다.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넷스케이프, 넷매니지, 야후 등이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社は 인터넷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社の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빌 게이츠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社の 제품에 인터넷 기술을 핵심 기능으로 첨부하는 'embrace and extend'라는 인터넷 전략을 통해 회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11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컴덱스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터넷에 대한 열광이나 새롭게 탄생하는 회사의 수를 볼 때 그것은 마치 골드 러쉬와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실제로 황금이 존재하는 골드 러쉬라는 것이다. 황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묻혀 있다. 통신 가격의 하락과 PC 상호간에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줄 매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는 사업을 하는 방법이나 배우고 즐기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社は 경쟁자들을 앞지르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美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社は 향후 10년간 인터넷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연구 개발(R&D)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그 결과 내년 연구 개발(R&D) 투자는 2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社の 인터넷 브라우저의 가장 최근 버전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은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상업 온라인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술로의 이전과 인터넷의 구축에 따른 이점을 얻기 위해 데스크탑 오퍼

레이팅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바꾸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주가뿐만 아니라 최근 연설에서 보여준 빌 게이츠의 활기찬 목소리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부활은 세계 2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이나 인터넷 서버의 선두 공급자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와 같은 회사들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맥닐리는 자신들의 플랫폼 독립 네트워크 컴퓨터와 자바(JAVA) 언어의 이점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 이 세 회사 모두에게 향후 6 개월은 시장 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된 자바를 예로 들면, 많은 전문가들이 자바는 현재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나 실패할 것이냐의 여부는 향후 6 개월 안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IT 논평자인 쥘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당신이 자바의 운명을 미리 알고 싶다면 상위 10 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지켜봐야 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 자바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ActiveX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들이 한 번 결정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결정에 따를 것이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되든가, 아니면 새로운 리더가 출현

할 것이다.” 오라클에서는 저가의 네트워크 컴퓨터(NC)의 홍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재 네트워크 컴퓨터의 판매 현황이나 옅은 고객층은 래리 엘리슨이나 많은 홍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더 작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시장 경쟁에서의 승리자는 전세계 고객들에 대한 새로운 세대 소프트웨어의 핵심 공급자가 될 것이다. 미국의 증권 회사인 Robertson, Stephens & Company의 분석가인 마샬 센크는 “지금 컴퓨터 시장에서는 목표 달성과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社와 오라클, IBM, 휴렛팩커드 사이에 불가피한 경쟁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대신, PC, NetPcs(마이크로소프트社와 인텔이 합의한 표준), NCs 등 각각 특수한 환경 하에서 운용되는 컴퓨터들은,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텔리전트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훨씬 더 큰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음 세대의 IT시스템은 기술만큼이나 브랜드 네임, 기업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1,080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리더들 - 마이크로소프트社, 오라클 등 - 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연구 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나 마케팅을 위해, 몇달 전 뉴 올리언스에서 개최된 ‘CA World’ 행사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회의나

전시회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인터넷 부문에서 혁신과 개발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하고 홍보·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한 저렴한 비용의 공공성과 유통 경로의 확보는 인터넷 서치 회사에서부터 네트워킹 전문 업체나 인터넷 주식 회사에 이르는 수백 개의 소규모 기술 집단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비록 미국이나 유럽 이외의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나스닥(Nasdaq: 미국의 장외 주식 시장)이나 영국의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과 같은 기타 소규모 주식 시장에도 진출했다. 그외 일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규모가 더 크고 역사가 오래된 IT 기업에 의해 합병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 2년 동안 증명된 바와 같이, IT 부문에서 인수 합병(M&A)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상위 업체의 합병이 계속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7월에 출판된 소프트웨어 매거진의 '연간 100대 기업'에 따르면,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패키지 회사들의 작년 매출 성장률은 산업 평균 성장률 31.5%를 훨씬 웃돌았다. 또한 그들의 총매출액은 2년 전 상위 100개 회사 총매출액의 63%에서 작년에는 67%로 증가하였다. 작년에 이루어진 합

병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社は 영국의 Network Managers and Netwise를, Computer Associates는 자신의 라이벌인 Legent를 사들였으며, 오라클은 IRI Software를, Sybase는 Powersoft를 매입했다. 반면, 작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던 노벨은 오히려 올해 초에 WordPerfect Applications Suite를 캐나다의 Corel에 팔았다. 작년 상위 100대 소프트웨어 업체 가운데 40개 이상이 최소한 한 회사 이상을 매입했으며,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단축 및 연구 개발(R&D) 투자의 증가와 함께 합병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고객 수요도 인터넷, 전자 상거래 및 enterprise computing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Inte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연간 13% 이상의 높은 성장세에 있으며, 2000년 경에는 거의 1,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Source : *Financial Times*, December 4, 1996)